

## 李朝時代 農民運動의 性格과 農民意識 變化\*

李廣遠

責任研究員, 資源經濟研究室

- I. 序論
- II. 李朝 農民의 社會經濟的 特性
- III. 農民運動의 刺戟要因
- IV. 農民運動의 樣相과 價值觀의 變遷
- V. 農民意識의 變化
- VI. 結論

### I. 序論

支配者와 食糧을 생산하는 耕作者 사이의 分業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社會體制의 발달을 흔히 文明의 발달이라고 한다. 그러나 耕作者와 支配者 사이에 職能의 分業을 전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生產性을 높이고 새로운 社會組織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려면, 農民에게 최소한의 몇 가지 생존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울프(R. Wolf)는 農民에게 최소한의 칼로리 및 代替用 資金과 좁은 農民世界의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儀禮費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sup>1</sup> 하였다. 農民들은 많은 일손들로 이루어진 生產組織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입들로 이루어진 消費의 단위이기 때문에 먹이 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用役을 대주어야 하

고, 餓은이는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하며 죽으면 農民들의 金庫에서 장례 비용을 써야 한다. 農民들간의 밀접한 관계는 農民들의 紐帶感을 다져주는 情理를 불러일으키며 儀禮用 資金을 사용하여 보다 큰 共同體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脈絡에서 農民들이 勞動을 하는 것이지 利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農民은 生產者이면서 消費者로서의 性格 때문에 최소한의 칼로리를 유지해야 하는 한편 代替用 資金과 儀禮用 資金까지 마련해야 하는 經濟行爲者인 동시에 한 집안의 家長이기도 하다. 그러나 支配者의 입장에서 農民이란, 무엇보다 자기의 權力維持費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의 원천이다.

農民들이 부딪치는 문제는 이처럼 家族을 부양하는 동시에 外部世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農民들은 生產을 늘리거나 消費를 줄이거나 하는 정반대의 두 가지 방향에서 外部world의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 첫번째는 耕作面積을 최대로 확보하여 그에 투입한 勞動力의 產出을 올려서 生產性을 높이는 데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生產要素 즉 土地, 勞動力 資本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農民

\*本論文은 高麗大學校 刊行 「高大文化」第20輯, 抽稿 「歷史上의 農民運動」1981 중 李朝時代部門을 발췌하여 補完再整理한 것이다.

들에게는 한 폐기의 작으면 土地라도 단순한 生產要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價值가 깃 들어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戰略은 消費를 줄이는 것인데, 최저 칼로리만으로 생활하든가 傳統的 社會關係를 유지하는 節禮用 資金을 줄이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農民들은 먼저 生產增大 전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戰略은 土地生產性 증대로 土地價值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土地自體가支配者의 收奪 대상이 되거나 地代를 상승시키게 하였다. 특히 自然環境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地代의 支拂이 어렵게 되면 生產要素까지도 잃어버리는 農民으로 전락된다. 이 시기가 지나면 農民들은 社會組織을 좁은 테두리 속에 축소시키는 시기가 온다. 農民層의 分解와 共同體意識의 解體過程을 밟게 된다. 이 시점에서 農民들은 社會羈絆의 한계를 점토하여 社會的으로 매장될 것을 각오하고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農民은 자기의 필요와支配者의 要求 사이에서 均衡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聚張關係가 일어나는 것이다. 農民反抗의 발단이다. 이것이 社會的倫理觀을 바탕으로 싹튼 大衆意識과 합치될 때 커다란 에너지로 응집되어 農民運動으로 발전된다.

農民運動은 農民들이 처한 당시의 위기를 社會諸構成員間의 상호 유대에 의하여 自然的, 人爲的 環境을 개선하려는 데 그目的이 있었다.

本稿는 李朝의 農民들이 주어진 自然的, 人爲的 環境改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環境改善의 움직임으로 옮기기 이전에 農民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農民들의

民衆意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데目的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李朝時代 農民運動의 刺戟要因, 農民運動의 樣相, 農民들의 상황에 대한 認識 또는 價值觀의 变遷 등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 II. 李朝 農民의 社會經濟的 特性

麗末 科田法을 배경으로 태동한 李朝의 土地制度는 高麗의 田柴科制度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몇 가지 면에서 麗末과 李朝의 사회 정세는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收取樣式에 큰 전환이 있었다.

高麗前期에는 收取過程에서 국가 권력이 크게 주목한 것은 土地가 아니라, 人間의 勞動力, 즉 人丁의 多寡에 있었다. 그런데 李朝에서는 人丁 대신에 土地가 收取의 전제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戶等編成이 人丁의 多寡가 아니라 土地의 所有量에 따라서 결정되고 貢賦, 力役을 수취하는 기준이 되었다.<sup>2</sup>

收取樣式에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世宗朝의 일이다. 收取樣式의 변화와 전환이 실제로 收取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철저히 시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收取의 대상과 기준이 土地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租稅, 貢賦, 力役과 함께 농민의 가장 큰 부담은 國役의 대표적인 軍役이었다. 軍役의 收取樣式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戶首(正兵)와 奉足으로 구성되는 軍戶의 顛성 양식은 高麗 때와 비슷하다. 다만 構成原理에 있어 戶首 및 奉足이 소유하는 土地의 廣狹이 일정한 爪용을 하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일정한 면적(田 6結) 이상의 土地를 소유하는 戶首에 대하여는 奉足이 붙지 아니하였고, 또 奉足은 일정한 면

석(田 2~3結)이하의 土地를 가진 자들만으로 형성되었다.<sup>3</sup> 이와 같이 李朝 初期의 軍役 파악은 현실의 土地所有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法制의 편성을 하였다. 軍役은 太宗 때 軍丁成籍法에 計田成籍法을 채택함으로써 한때 土地基準樣式을 취하는 듯한 경향을 보인 일이 있는데<sup>4</sup> 이것은 上述한 현실적 土地所有 상태에 입각한 軍役파악의 형태와 함께 土地의 매개성을 높이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뒤 軍丁의 計田成籍法은 흐지부지해지고 戶首, 奉足으로 구성되는 軍戶編制가 世祖 때부터 二丁一保의 軍保制로 개혁되자, 현실적으로 土地의 媒介性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곧 役의 가장 큰 부담인 軍役에서 土地가 媒介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高麗前期의 田柴科農民의 경우나 李朝 初期의 農民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軍保制는 그 자체가 미구에 나타날 軍役의 代役이나 代役價의 내부적 모순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 成宗에서 中宗에 이르는 사이 軍役의 代役은 점차 公認되고 中宗 말년에는 軍役代役의 전면적 公認이 불가피하게 되어 완전한 納布制가 실시되었다.<sup>5</sup> 이와 같이 軍役의 納布制가 실현된 것은 軍役의 人身的把握이라는 재래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過程을 밟는 동안에 土地는 여려 면에서 社會經濟의 으로 우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土地에 대한支配意慾을 가진 地主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國家의支配體制에서도 이를 地主들이 종주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官人의 地主의 性格이 부인되고支配階級 안에서 地主다운 地主의 성장을 보지 못하였던 高麗前期에 비하면 하나의 큰 社會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麗末의 科田法에 일단 農莊은 부정되었으나,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부활되었다. 農莊의 再現과 擴大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얼마 가지 않아 科田法體制를 파괴하고 地主制의 社會를 출현시켰다. 李朝 農莊의 소유주는 土地支配의 주체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高麗 農莊의 소유주에 비해 地主的 性格이 훨씬 강했다. 貴族, 官僚, 土豪로서 대표되는 李朝時代의 地主들은 넓은 農莊을 경영하여 權力的 存在에 의존해서 라기보다 자신의 理財的 ability으로 이를 확대하였다. 農莊의 경작자는 奴婢일 경우도 있었고 良民의 没落農民일 경우도 있었다. 没落農民인 佃戶일 경우 並作半收의 경영 방식이 성립되었다. 耕作奴婢도 순수한 奴婢와, 신분은 奴婢라도 社會經濟의 처지는 佃戶와 같은 外居奴婢가 있었다. 外居奴婢는 奴隸라기보다 農奴의 성격을 띤 일종의 解放奴隸로서 李朝時代의 奴婢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農奴의 성격을 띤 外居奴婢가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李朝社會의 性格을 이해하는데 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並作半收制는 農莊뿐 아니라 李朝初부터 일반 民田에도 널리 보급된 대표적 土地經營方式의 하나로 高麗 初期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中世 封建의 性格을 띤 현상이었다.<sup>6</sup>

한편 村落에 대한 國家權力의 지배도 그 양식이 달라졌다. 血族團體의 聚居地였던 高麗前期의 村落은 高麗末期에 이르어서는 이미 순수성이 상실되어 異姓雜居의 현상이 나타나 血族團體 首長을 매개로 한 村落支配方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sup>7</sup> 그래서 地域과 族團에 대한 이종적 지배가 해체되고 地域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함께 鄉, 部曲, 所 등의 특수한 賤民集團의 村落도 점차 해방되어 郡縣編成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이상으로 李朝社會의 社會構成과 性格을 파악해 보았다. 高麗社會가 古代的인 社會였음에 반하여, 李朝社會는 中世的 封建社會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李朝에 들어와 中世社會가 갑자기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高麗 末期 社會와 李朝 初期 사회와는 그간에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田柴科體制가 무너지고 高麗의 中半期, 즉 武臣執權期로부터 李朝時代에 이르는 2세기간의 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점진적으로 古代社會를 극복하여 中世社會를 형성하는 轉換期의 상황을 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農民의 古代的인 共同體關係의 해체와 土地支配關係의 발전, 그리고 그것을 촉진한 農莊制 土地支配의 出現과 成長이라는 면 가운데에서 農民의 性格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農奴의 성격을 면 佃戶로서 土地를 媒介로 地主와의 關係를 규정한 農民이었다고 볼 수 있다. 高麗 農民이 國家權力에 의해 支配者(權勢家)와 被支配者(農民)의 관계를 규정했다면, 李朝 農民은 土地支配關係에 의한 支配者(地主)와 被支配者(農民)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高麗의 農民은 人丁에 収取의 기본을 두었기 때문에 土地收取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러웠지만, 李朝의 農民은 土地隸屬的인 農民이라고 볼 수 있다.

高麗 農民社會가 지녔던 閉鎖的 自由身分이면서 제한된 村落支配體制내에서 소규모의 자기 토지를 경영했던 것에 비하여, 보다 封建的 社會體制내의 農奴의 신분이면서 土地經營體내의 生產要素의 하나인 勞動力 供給源으로서의 農民이었다. 高麗社會가 가졌던 同姓 集落共同體로부터 대규모 土地經濟體制가 요구하는 多數 異姓混居共同體로 발전함으로써 본래의 村落共同體가 지녔던 連帶意識體制에서 서서히 분해 해

체되어 근대적 生產組織내의 構成員으로서의 農民이었다. 뿐만 아니라 儒教社會가 요구하는 支配者의 物質奉養者로서 生產品뿐 아니라 모든 用役까지를 供納해야 하는 農民으로 전락하였다.

### III. 農民運動의 刺戟要因

#### 1. 社會經濟的 背景

李朝 土地制度의 근간을 이룬 科田法은 土地國有를 대전제로 한 것이지만 土地의 私有化는 土地改革 직후부터 일어났다. 功臣田은 처음부터 상속이 공인되었고, 科田은 우선 守信田, 恤養田의 이름으로 기한부나마 상속을 인정한 뒤 실질적으로 세습 私有化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sup>8</sup> 科田法이 원칙상으로는 私有化를 금한 것은 外役田, 軍田, 科田 등에 한하였고 公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相續世襲을 금하지 않았다. 또 形式上 국가가 소유하는 土地인 公田은 누가 占有하던 國庫에 納租만 충실히 이행하면 國家로서는 統制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科田法은 麗末에 三稅를 폐지한 農莊(私田)을革罷하여 公田으로 환원하고 土地賣買를 금지하는 동시에 收租率을 10分의1 收租로 낮추어 小作制形成을 봉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科田法 제정 이후에 일부 농장이 존속하였고, 부분적으로 並作半收制가 형성되고 있어 太宗 6년과 15년 두 차례에 걸쳐 並作 금지를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sup>9</sup> 드디어 世宗 6년에는 民田의 賣買를 공인하게 되었고 睿宗 때는 並作을 금지한 정부 자체가 그것을 公認하여 民田에 並作經營方式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이리하여 宗親, 貴族, 兩班, 鄉吏 등의 土地兼併

이 계속 진전되어 壬辰亂 이후에는 다수의 농민들이 小作農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農莊은 農業生產地로서 뿐 아니라 광대한 土地를 포함한 村落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農莊의 構成要因은 광대한 土地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奴婢를 비롯한 각종 耕作勞動者이기 때문이다. 成宗 22년 3월 癸卯條에 보면 永膺大君의 농장에서 일하는 奴婢가 1만 명을 넘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農莊이 1개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개소에 걸쳐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農莊의 所有主는 村落의 農土를 소유하는 大地主일 뿐만 아니라 村落民의 지배자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高麗農民이 國家權力에 의해 収取를 당했던 것에 비해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적접적인 収取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貴族들이 農莊을 설치하는 풍조는 京畿地方을 넘어 비옥한 農土가 많은 忠淸, 慶尙, 全羅 등 下三道로 확대되었으며,<sup>11</sup> 世宗祖에는 宰相급의 高級官人만이 長利로서 치부하던 풍조가 成宗 때에는 受祿者마저 長利를 수단 삼아 農莊을 설치하였다. 農莊 설치의 풍조는 16세기에 이르러서 地方士族에게까지 미쳤으며,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鄉里層도 農莊 설치를 둘러싸고 鄉村支部體系의 근간을 이루는 守令體系에 도전하기도 하였다.<sup>12</sup> 심지어 下賤한 신분이라도 富와 奴婢를 거느리는 農莊을 설치하는<sup>13</sup> 등 土地支配秩序는 엉망이었다. 民田은 權門勢家들의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農民들은 佃戶化되거나 新墾地를 찾아 邊方으로 流離하였다. 農莊의 확대는 所有主의 地主的性格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農耕地의 부족을 심화시켰다.

前後 7년간에 걸친 壬辰亂의 와중에서 農民의 離散과 農土의 황폐뿐 아니라 列邑의 田案이 상

실된 결과, 宣祖 34년에는 8道의 田結數가 戰後의 全羅道 규모인 30萬結로 감축되었다. 戰後 두 차례에 걸친 量田에도 仁祖 11년 당시 전국의 田結數는 53만여 結에 불과하였고,<sup>14</sup> 仁祖 12년, 三南을 量田한 결과 131만 7천여 結로<sup>15</sup> 대폭늘어났으나, 戰前의 151만 5천여 結의 수준에는<sup>16</sup>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 壬辰亂 이후 戰禍로 인한 農耕地의 急減과 함께 村落社會는 廢墟化的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柳成龍은 壬亂後의 社會相을 「수 개의 村落에 걸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란 한 채가 있을까 말까 하며, 10里의 거리 안에 한 채가 있을까 말까 하다」고 쓰고 있다.<sup>17</sup> 村落社會의 廉虛化 현상은 壬辰倭亂 직전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忠淸道 丹陽郡의 사례에서 보면 1450~1454년에 편찬하였던 世宗地理誌에는 丹陽郡의 戶口數가 235戶(724名)인 것으로 되었다. 그후 100년이 지난 明宗 12년(1557) 5월 己未條의 明宗實錄에는 40戶로 되어 6분의 1로 減少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重層的인 租賦와 貢役에 시달린 農民들이 流散을 거듭한 나머지 40戶로 減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丹陽郡守 黃俊良이 租賦와 貢役을 부담하는 良民戶數가 40戶로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8</sup> 한 郡의 戶口構成은 土族, 良民, 賤奴婢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土族과 賤奴婢는 租賦와 貢役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良民戶數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後述하겠지만 土族과 賤奴婢層의 증가로 상대적인 良民數의 감소를 가져와 더 많은 賦, 貢役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宗親들과 貴族들의 農莊을 경작하는 外居奴婢와 良民들도 收穫의 절반을 小作料로 바쳤으며, 여타 農莊의 佃客이나 並作農民도 慣行에 따라 절반을 地代로 바치는 高率의 소작료가 따랐다.

內需司와 宗親의 농장을 경영하는 外居奴婢는 雜役은 면제되었으나<sup>19</sup> 貢賦와 稕役은 부담하였다. 이 결과 小作農民은 수확의 절반을 農莊主에 바치고도 國家에 대해서는 거액의 貢賦와 稕役 및 身役을 부담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小作農民의 국가와 民田地主에 대한 이중적인 地代 부담은 필연적으로 再生產元本을 침식하게 되고 小農經營을 바탕으로 한 封建的 生產機構의 파탄을 가져왔다.<sup>20</sup>

한편 壬亂 후 國家再建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증설됨에 따라 많은 경비가 필요하였다. 宣祖 35년에는 三手米의 新稅를 설정하였고, 光海君～仁祖朝에 걸쳐서 임시세인 結布를 土地에 부과하였으며, 잇따른 營・衙門田의 설정 등이 있었다. 地方官府도 전후 田制紊亂期에 주요 재원이 된 官屯田, 衙祿田, 公須田 등의 公田의 일부를 宮房과 權勢家에게 침탈당하고 弹倉일로의 地方費를 채우기 위한 規外雜稅를 부과했다.<sup>21</sup> 守令은 이러한 사회적 정세에 편승하여 私慾을 채우기 위한 重歛의 收奪을 자행하였다. 이에 多數의 農民들이 農土를 상실하고 流民화하였으며 각 지방에 草賊이 봄으로써 封建的 支配機構를 위협하였다.<sup>22</sup>

특히 人口增加로 全羅, 慶尚, 忠淸 三南은 人口가 가장 조밀한 지역으로 耕作할 땅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小作料가 다른 지방보다 높은 폐다 소위 穀倉이라 하여 租稅가 많이 부과됨으로써 農民들의 생활은 극히 어려웠다.<sup>23</sup> 春窮期가 계속되고 가뭄과 홍수가 연발되는 속에서 餓死者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지방보다 兩班地主가 많은 三南地方에서 兩班과 農民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 없다.<sup>24</sup>

## 2. 政治社會的인 背景

儒教的 政治理念을 바탕으로 한 李朝社會는 엄격한 兩班階級 統治社會였다. 李朝社會는 兩班, 中人과 衙前, 常民, 賤人 등 네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常民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兩班과 常民의 두 계급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常民의 대부분은 農民으로 전체 인구의 대半을 차지하였다.

兩班에게는 納稅, 勞役, 兵役義務가 면제되고 기타 身分의 우대가 주어졌는데, 특히 科舉를 통해 官吏가 될 수 있는支配階級으로서의 특혜가 있었다. 兩班支配의 정당성은 兩班官僚들이 天理에 따른 善政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유지되었으나, 李朝中期에 들어서면서 兩班階級의 統治力은 점차 그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官僚들은 合法, 非合法의 土地의 世襲化와 兩班階級의 土地寡占과 地主化로 土地分配의 불균형과 高率의 小作料에 의해 農民生活은 극히 궁핍하게 되었다.<sup>25</sup> 특히 官職에 있는 兩班들은 在職期間中 平生 또는 자자손손이 먹고 살 財物을 마련하기 위해 토색질을 일삼는 탐관 오리가 많았다. 腐敗官吏의 수는 兩班의 수가 증가하여 官職競爭이 치열할수록 증가하였으며, 農民에 대한 착취와 부정의 수법도 陳結, 隱結, 白骨徵布, 黃口簽丁 등 매우 다양하였다.<sup>26</sup> 그 결과 李朝統治 기반이 되는 三政의 문란을 가져왔다. 1850~60년까지 農民에 대한 토색질로 처벌된 地方官吏의 수는 400명에 달했고, 이 조사를 맡은 暗行御史 중에 4명도 조사기간 중 뇌물수수가 탄로되어 처벌된<sup>27</sup> 것을 보면, 당시支配階級의 農民에 대한 수탈이 얼마나 커던가를 알 수 있다. 地方官吏들의 부패는 특히 말단 兩班官吏의 하수인으로서 직접 農민들과 접촉했던 衙前들의

부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봉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農民들에게 稅金이나 勞役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農民들을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였다.

한편 兩班人口의 自然增加에 비하여 官職의 수는 제한되어 兩班들 사이에 극심한 競爭을 야기시켰고, 黨派 싸움과 士禍, 勢道政治로 발전하면서 서로 대립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호 분열과 헐뜯는 상황에서 農民들의 兩班에 대한 존경이 지속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權力에서 물려난 兩班과 그 자손들은 糊口之策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몇 대를 내려가면서 비록 祖上은 兩班이라 하더라도 農民 또는 小作人은 물론이며 심한 경우에는 머슴으로까지 실제로 身分이 하락한 예는 많았다.<sup>28</sup> 兩班 후예 가운데는 兩班出身임을 증명하는 家系와 族譜을 판 경우도 많았고, 常民 중에도 부유한 자는 官職이나 兩班의 지위를 공공연히 산 예가 많았다고 한다. 壬辰亂 중 財政을 베우기 위해 政府가 官職을 팔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社會가 문란했던 李朝末期에는 急造된 양반의 수가 상당했으리라고 추측된다. 壬辰亂 직후 都承旨, 吏曹判書 등을 역임했던 李睟光(1568~1628)은 芝峯類說에서 中央 및 地方官衙에서 일하는 官人數가 격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니컬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正·從1品을 지난 最高級 官人數가 50명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宰相으로 일컬어지는 2品 이상의 高級 官人數가 20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또한 官인의任命規準도 문란의 極에 달하여 雜類로 賤視를 받아오던 軍功, 納粟, 譯官, 宦官輩들조차 1·2品의 高級官人으로 출달음치듯 승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sup>29</sup> 것이다. 그러나 中央官署에 근무하던 高級官人們도 서울 근교에 머물러 있으면

家勢가 빈곤하여 질 뿐만 아니라 1,2代를 거친 연후에는 品官이나 平民이 되게 마련이었다.<sup>30</sup> 따라서 退職과 더불어 귀향하여 村落社會의 자배자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地方官吏들의 統治權이 위축되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고, 地方官吏들과 연합하여 小農民들을 收奪하며支配權을 강화하는 데만 분방하여 社會秩序는 극히 어지러워 졌다.<sup>31</sup>

이와 같이 賤한 身分의 사람들이 高級官僚로 진출하는 것과 동시에 高級官僚들이 良民으로 격하되는 경우도 흔하였으며, 良民層도 士族이나 奴婢로 신분이 바뀌는 등 사회질서의 큰 변화가 잇달았다. 당시 身分構成의 변화를 大邱府管下 10개面의 예를 들어 보면<sup>32</sup> 다음과 같다. 肅宗 16년(1690)에는 總戶口數에서 士族戶口數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에 지나지 않던 것이 英祖 5년(1729)과 8년(1732)에 이르러 18.7%로 증가하였다. 다시 正祖 7년(1783) 및 正祖 13년(1789)에 이르러 37.5%로 더욱 빠른 증가를 나타냈다. 더구나 19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哲宗 9년(1858)에 이르러서는 70.3%를 차지하였다. 村落社會의 身分構成에 있어 士族層의 構成比率이 3분의 2선을 훨씬 넘는 士族社會化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良民의 比率은 각 시기별로 53.7%, 54.6%, 57.5%로 약간씩 증가하다가 哲宗 때에는 28.2%로 급격히 감소되고 말았다. 奴婢層의 構成比率은 오히려 급속한 減少 추세를 나타내었다. 1690년에 37.1%이던 것이 1729년, 1732년에는 26.6%로 감소하였으며 1783년, 1789년에는 5%라는 극소한 비율을 나타냈고, 1858년에는 1.5%로 다시 감소하여 奴婢層이 소멸되어 버린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身分構成에 있어 士族層이 격증하고 奴婢層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身分移動이 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며,

身分體系의 봉파를 의미한다. 그리고 土族들은 단순한 地主일 수도 있지만 農業經營者라는 職業의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몰락 兩班이나 上向賤民, 또는 良民 出身의 農民이라고 볼 수 있다. 新造兩班은 李朝社會의 기초가 되는 階級秩序를 혼들리게 만들었으며, 農民들로 하여금 새로운支配秩序에 대한抵抗心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이외에 16세기부터 표면화된 兩班階級의 당쟁으로 中央行政力은 극히 弱化되었고, 19세기에 와서는 外戚들의 勢道政治로 兩班階級 자체의 권위와 힘을 실추시켰다. 三政의 문란으로 中央行政의 원동력이 되는 國庫收入을 대폭 감소시켰고, 1860년에는 財政不足으로 中央官吏들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sup>33</sup>

日本의 武力에 의한 丙子修好條約 체결 이후, 주변 세력인 日·清·露의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쟁탈 싸움은 李朝體制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다. 列强들이 제멋대로 韓半島에서 混戰을 벌이는 가운데 束手無策으로 거의 被動적으로 끌려만 갔던 韓末 政治 엘리트의 敗北意識은 宗主國으로 믿었던 清의 西歐列國에의 굴복을 확인하면서 이미 형성되었다. 곧 李朝末 宦僚의 부패와支配秩序의 파괴, 그리고 被動的政治主體와 外勢에 대한 農民들의抵抗意識이 農民運動으로 발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政治的 社會的 혼란과 함께 오는 극심한 自然環境 요인을 들 수 있다. 關西反亂을 평정하는 責務를 마치고 서울로 귀임하여 反亂에 가담한 農民實情을 보고하였던 吳淵常은, 첫째로 1809년 이래 격심한 凶作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饑饉狀態에 빠져 있다는 사실과 둘째로 饑饉과 더불어 惡疫이 유행하여 시체가 길을 메우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sup>34</sup> 1809년의 大凶作은 격심한 旱魃 때문이었는데, 그해의 旱魃은 關西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丁若鏞은 1809년 6월에 金公厚에게 보낸 書翰에서 湖南地方에 내습하였던 한발의 참상을 傷心慘目 不忍聽 不忍視의 광경이라고 적고 있다.<sup>35</sup> 그해 가을에 이르러 饑餓民은 전국에 걸쳐 8,391,239명에 이르러 1809년 말 전국 인구수 7,583,046명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sup>36</sup>

天災, 饑饉, 惡疫, 流亡 등으로 거지의 범람 사태가 발생하여 哲宗實錄의 哲宗 3년 2월 辛卯條에는 國王과 領議政이 거지 문제에 대해 對談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거지 문제는 農村에서뿐 아니라 都市에서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哲宗 4년 9월 5일條의 日省錄에는 京兆의 가로에 병사한 거지의 시체가 쌓여 있는 참혹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 VI. 農民運動의 樣相과 價值觀의 變遷

李朝의 農民運動은 크게 1862년의 晉州民亂, 1863~1893년간의 民亂, 1894년의 東學農民革命 등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862년에 발생했던 民亂件數에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아도 30건에 이른다. 그중에서 慶尙道가 13건으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慶尙道 農民社會가 맞이하였던 構造的 위기가 가장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晋州民亂은 대표적인 최초의 農民抗拒라는 면에서 주목된다. 晉州民亂은 1861년부터 農民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던 都結의 分揀案을 衙前層이 강제 징수한 데서 시작되었다. 都結이란地方衙前들이 公田과 軍布를 수탈하고 수탈분을 보충하기 위해 結稅를 定額 이상으로 징수하는 特別付加稅와 같은 것이었다. 農民들은 억울한

都結의 납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방법으로 分納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인데 강제로 징수했던 것이다. 이에 수만 명의 農民들이 官府의 橫歛한 비행을 열거하면서 吏房과 捕吏 두 명을 불태워 죽이고 이를 말리던 吏房의 아들도 밟아 죽였다. 또 吏胥의 집 수십 호를 불태우고, 官廳을 부수고 右兵使인 白樂莘을 감금하였다. 이어서 課稅 및 勞役의 장부를 모두 소각하였다. 감옥의 죄수들을 방면하고, 米穀倉庫를 부수어 푸식들을 꺼내었으며, 邑外 村落으로 나가 地主의 집들을 불태우는 등 地方官僚의 부패와 학정에 대한 반항이었다.<sup>37</sup>

그러나 政府가 民亂 수습 과정에서 원성의 대상인 腐敗官吏들에 대한 刑量은 관대하게 한데 반하여 農民들과 主謀者들에 대한 刑量은 가혹하게 하였다. 이것이 후에 農民들의 지배계급에 대한 격렬한 항거로 나타나게 된 커다란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1863년부터 1894년 東學農民革命이 일어나기 까지는 50여 개의 農民蜂起가 일어나게 되는데, 農民들의 傳統的 體制에 대한 저항 정도는 더욱 증대되었고, 웨센 조직적이었으며, 체계적이었다. 晉州民亂과 같이 평소 불만에 쌓인 農民들, 의 즉 흥적이고 감정적이면서 非組織性, 一時性 우발성, 被動性인 전통적인 민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行動도 웨센 過激化하여 죽창, 활, 심지어 銃을 사용하였으며, 寧海의 경우에는 縣監을 살해하기조차 했다.<sup>38</sup>

이 기간의 항거에는 没落兩班層이 많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폭력의 대상은 官吏들과 地主였으나 官吏의 下手人으로서 말단 관료격인 衙前들은 살해하였지만 兩班들은 죽이지는 않았다.<sup>39</sup> 世宗朝 이래로 李朝는 郡縣制度와 守令體制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

치로서 衙田層을 良民 이하의 신분으로 고정시켜 그들의 階層的 成長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衙前層은 守令層을 능가할 정도로 民財收奪行爲를 자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말았다.<sup>40</sup> 農耕文化가 가지는 集團意識에서 볼 때 같은 常民出身이면서支配階級으로 군림하는 衙前層과의 人間關係의 단절은 큰 배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衙前層의 社會經濟的 地位向上: 강화는 지방 士族兩班層의 몰락을 가져오는 상반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没落兩班層이 많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急造된 많은 지배계급에 대한 農民層의 반항과 没落士族層의 반발이 이미 社會基底에 팽배하여 있었던 것이다. 常民들은 대체로 권위나 형식은 인정하고 용납하여 비켜 주고 굴복한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의 常民들이 上位職에 진출하고 또한 새로운支配階級으로 군림하게 됨으로써 느끼는 異質感——연대의식의 파괴에서 느끼는 挫折感——이 더 큰 간격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集體的 人間關係로 성립되어 왔던 農耕文化圈에서는 인간 관계의 중간에 부동하는 효소를 人情과 義理로써同一志向關係에 안주하려 한다. 인간 관계의 융합 관계에서의 이탈은 가장 괴로운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데에서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종의 支配層에 대한 農民層의 連帶意識의 발로이며 他的 苦痛을 자신의 苦痛으로서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連帶意識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 있는 没落士族, 兩班層이 農村에 많이 남아 있으면서 農民의 指導者로 農民과 同化됨으로써 農民의 社會意識 水準도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没落士族들이 生計를 위해 訓道로 많이 전향함으로써 이미 1800년대에는 수천 개의 書堂이 마을마다 있었다고<sup>41</sup> 하니, 農民들도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農民水準 향상은 물론支配階級에 대한 知識士族들의 反抗意識과 비판적 現實思潮에 農民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没落士族兩班層이 農民蜂起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이것이 東學農民革命運動에 이르면 무조건의 반항이 아닌 구체적인 社會改革을 요구하는 보다 理論的이고 體系的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没落兩班層과 農民(常民)層의 의식이 한데 동화되어 階級意識의 타파와 더 나아가 實學思想과 天主教의 전래로 인한 萬人平等意識이 舊體制와 官僚體制의 타파로 연결되고 있는 듯하다. 封建的 身分制度를 止揚하고 부귀와 빈천의 차별 관계를 해소하는 길이야말로 廣濟蒼生의 大道라는 天人一如의 東學理念이 이 시대적 배경을 타고 나온 것을 보면 당시 社會意識 수준은 꽤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天人一如의 근본 교리에 입각하여 封建的 身分制度를 지양하고 富貴와 貧賤의 차별 관계를 해소하는 길이 廣濟蒼生의 大道라는 東學理念은, 그동안 억압되어 온 일반 농민들이 庶政의刷新을 요구하며 대거 합세함으로써 東學農民革命으로 발전되었다. 蜂起에 가담한 인원수는 연 300만 명으로 절대다수는 非敎徒인 農民이었고, 주모자들도 직접 농민과 함께 생활한 農民인 점이 다른 民擾와 다른 점이다.

東學農民革命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척되어 왔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회피하겠지만, 이러한 農民들의 問題意識은 1894년 5월 13일 全琫準의 倡義文에 잘 나타나 있다. 倡義文에는 첫째, 支配權力者들이 監事나 守令들이 국가의 위난을 생각지 않고 다만 肥己潤家에 만 풀

두하고 있다는 것, 둘째, 衛前層을 포함한 守令體系의 운영자들이 저질은 수탈행위로 허다한 貨賂가 國庫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만, 사치, 음란을 되풀이 하여 萬民이 도탄에 빠졌다는 것, 세째로, 百姓은 국가의 근본이니 근본이 쇠잔하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라 하여 支配階級들이 이룩하는 行動樣式과 思考方式, 生活感覺의 추악상을 체계있게 폭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폭넓은 理論體系를 전개하고 있다. 또 이들이 政府에 내건 弊政改革案에 보면, ①奴婢文書의 소각 ②七般賤人の 대우 개선, ③青春寡婦의改嫁 허락, ④官吏의 人材登用, ⑤稅制改革, ⑥각종 雜稅의 폐지, ⑦腐敗官吏와 支配階級에 아부하여 농민을 괴롭혀 온 褐負商 폐해의 근절, ⑧ 土地의 均等한 재분배, ⑨ 日本과 蓪通하는 자의 엄정 등 國內外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階級意識을 초월한 倫理의 封建性내지 傳統의 폐쇄성을 파기하는 일종의 社會改革運動으로 번지고 있다.

東學革命은 그해 7월 清日戰爭으로 연결되어 日本의 韓國支配를 촉진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運動의 결과로 農民生活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行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農民들의 의식은 성숙했으며, 國際問題, 民衆問題, 社會經濟問題 등 農民들의 시야는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傳統的 體制에 대한 단순한 反抗이 輔國安民이라는 면에서, 農民의 地位 向上을 막는 요인이 전통적인 체제뿐이 아닌 外勢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農民들의 社會的 身分이나 生活向上도 국가가 존립함으로써 가능하다는 社會意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즉, 農民들도 國家構成員의 하나로서自身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近代民族主義의 의식이 싹트게 되었던 것

이다. 전통적 사회의 下層에서 收奪의 대상이었던 「農民의 집약된 힘」이 근본이 되어 社會改革運動의 주축이 농민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近代 民族主義의 의식이 집약된 農民의 힘은 日帝의 침략과 함께 抗日戰爭으로 발전하였다. 근대적 民족의식은 日帝侵略에 항거하는 民族自存의 운동과정에서 성장해 갔다. 특히 대부분의 農民으로構成된 民衆이 民족적으로 성장한 것은 舊韓末 日帝侵略으로 말미암은 피해에 반발한 抗爭 속에서 축진되었다. 농민은 日帝의 土地占奪, 高利貸金에 의한 농촌 착취, 점진적 農業移民에 의한 침투, 日本商品의 市場支配로 인한 農村經濟의 봉괴 등을 통해 일제 침략을 누구보다 실감할 수 있었고, 日帝의 침략이 나라의 生存權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당시 封建執權層은 日帝의 조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農民이 東學革命軍에 대거 합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東學革命이 후기에 이르면 그 자체가 抗日獨立運動이었고 東學軍이 주창하는 反封建 反帝國主義는 곧 농민의 요구였으므로 東學革命運動은 그대로 農民運動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意識成長은 庚戌國恥를 전후하여 더욱 축진되었고 日帝의 土地調查事業을 통해 농촌착취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農民의 民衆意識 또는 民族意識은 급성장하였다.<sup>42</sup> 國內에서 여러 형식의 항쟁을 펴는 한편 滿洲 등 해외로 이주하여 獨立戰爭의 기반을 닦는 民族的 自主意識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民族的 民衆意識이 3·1운동으로 연결되었고, 祖國光復과 함께 새 民主國家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農民意識의 變化

만인은 모두 같은 비교적 平等과 자유로운 理想을 내세웠던 佛教理念과는 달리 李朝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어 온 儒教의 忠孝思想은 支配者와 被支配者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朱子學과 孟子의 機能兩分論은 兩班과 常民의 役割, 그리고 이를 兩者關係를 규정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朱子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理致를 가지고 있으며 人間이 취할 수 있는 至高의 목표는 이와 같은 이치를 파악하여 理致대로 자신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를 몸소 실천하는 자를 君子라 하였다. 한편 孟子는 세상에는 정신적 일을 하는 자와 육체적인 일을 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前者は 後者를 지배하게 마련이며 後자는 前者를 物質로써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sup>43</sup> 하였다. 李朝社會의 封建的 官僚意識은 이와 같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被支配階級인 農民 또한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官職은 上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垂直社會의 규범이 되었던 것이다.

將相됨에 씨가 따로 있느냐는 비교적平等한 社會意識을 가질 수 있었던 高麗社會와는 달리 李朝의 儒教社會에서는 常民은 태어나면서 常民이라는 宿命의 身分意識이 어느 때보다 확고하였던 것 같다. 高麗의 收取制度가 土地에 있지 않고 人丁에 있었기 때문에, 土地의支配體系가 확고하지 못하여 지배계급과는 독립적인 영농이 가능한 비교적 자유스러운 농민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李朝는 收取體系를 土地에 두었기 때문에 農民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까지 지배할 수 있어서, 農民은 土地에 종속되어 있

는 労動力 정도로만 생각되었다. 身分體系의 물략에 따라 支配體系가 물략하는 과정에서도 平等한 身分意識의 성장도 보지 못하였다. 단지 이 중 삼중의 重壓된 收奪에 대한 反抗意識이 싹텄을 뿐이다. 自己의 이익만을 위하여 朝令暮改하는 兩班層의 식견을 나무라듯 收取體系의 모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뿐 兩班體系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收取體系의 모순에 대한 개선의 요구는 農民層뿐만 아니라 施政의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學者들과 政治家들의 요구에서도 보여진다.

李朝는 王權에 의한 統一的 지배체계가 아닌 守令을 중심으로 한 地方豪族과 士族 등의 分權의 지배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農民意識이 형성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전한 半奴隸的 小作農民으로서 農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었을 것이다. 단지 農民社會에 동화되어 갔던 没落士族들이 보이지 않는 農民意識을 전달하는 일종의 對話 中介者로서 역할을 하면서, 農村實情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上疏文 또는 農書를 통해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正祖 22년(1789) 11월 己丑條의 正祖實錄에는 正祖가 내린 「勸農政求農書綸音」에 따라 69명이 農書를 送付하였는데, 그중 農村社會 士族層의 최대 구성분자인 幼學 36명과 生員, 進士 8명이 農書를 제출하였다. 正祖에게 農書를 제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農業經營과 技術에 정통한 사람인 地主 겸 農業經營者로 당시 農民意識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제출된 農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은 豪族, 士族, 中央 高級官人層에 집중되어 가는 土地所有形態를 시정하기 위한 均田論, 限田論의 제창<sup>44</sup>이다. 大土地兼併에 따른 폐해를 설명하고 그 원인은 官僚層이 牧民의 道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엄격한 官僚社會란 天理에 따른 善政이 계속될 때 가능하다는 儒教의 倫理觀에 근거한 것으로 論理에만 치우치고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官僚들을 비웃는 일종의 官僚卑下意識의 팽배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良民이나 賤民에서 兩班士族層으로 전신한 新造兩班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곁으로는 尊敬하는 듯하면서도 內的으로 비웃는 卑下意識이었던 것 같다. 李朝末期를 통해 農民社會에서 많이 읽혔던 一枝梅, 洪吉童傳에서도 그 일맥을 찾을 수 있다. 당시 農民層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土地大所有의 폐해라는 올바른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인이 되는 身分體系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儒教의 統治理念을 근본으로 하는 封建社會 農民의 속성에서 이해된다. 自給的 生產樣式에서 封建社會體制가 요구하는 計劃的 生產樣式으로 넘어가는 封建的 生產農民으로서의 위치를 인정한 것이다. 封建社會가 규정한 農民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意識보다 封建社會體制가 요구하는 支配秩序 속에서 안주하려는 意識의 발로였다. 그래서 農民層에서 上向 이동한 新造兩班에 대한 반항보다 農民層보다 아래 계층이었던 衙前層의 上向 이동에 더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이는 곧 새로운 價值體系에 대한 農民層의 身分的 下落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價值體系로 돌아가려는 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農民들의 저항이 폭력으로까지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體制를 현실적인 방법으로改善하지 못한 것은 身分意識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高麗의 農民運動史<sup>45</sup>에서도 보아 왔다. 農民들은 가난하고 압박받는다는 사실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가난하고 너무나도 압

박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반항한다. 李朝末社會를 풍자한 小說 가운데 一枝梅나 洪吉童과 같은 영웅적인 匪賊들에게 萬人平等의 社會를 이룩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부정을 바로 잡고 억압자들도 언젠가는 거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傳統的 道德과 倫理觀에서 勸善懲惡, 事必歸正을 강조했을 뿐이다. 前者は 支配倫理의 留學상을, 後자는 農民層의 울분을 甘耐하려는 宗教的 意識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의 西學의 전래와 19세기 중엽의 萬人平等을 부르짖으며 農民層 깊숙이 파고 들던 天主敎의 전래와 天人一如의 東學思想의 보급은 李朝末期 農民들의 身分意識을 급속도로 확대시켰다. 身分解放과 함께 施政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東學革命 말기에는 舊秩序를 타파하는 政治意識으로까지 발전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農民革命은 전개과정에서 封建的 儒林을 공격하던 것이 후기에는 抗日戰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음에는 儒林指導者에 의한 抗日 義兵戰爭에 참여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이는 敵 앞에서 民族意識이라는 公通분모에 근거를 둔 것이다. 義兵戰爭은 歷史 運行의 주체로서의 農民의 힘을 結集한 것으로 곧 民族意識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 IV. 結論

農民運動研究의 大家인 울프(R. Wolf)는 農民蜂起의 요인을 크게 人爲的인 요인과 自然的인 요인, 둘로 나누고 있다. 즉, 傳統的 社會에서는 自然條件이 웬만하면 農民들은 人爲的인 環境(例, 制度)에서 오는 어려움을 관습적으로 그대로 참는데, 自然的 條件이 갑자기 악화되어 생

활의 어려움이 加重될 경우에는 그 불만을 人爲的 環境에 돌린다고 하였다. 특히 東洋의 傳統社會에서는 自然條件, 예컨대 氣候가 좋아서 豊年이 되었다던가, 가뭄, 홍수로 인한 凶年이 되었다던가 하는 것을 統治者의 德性 정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農民運動에서 보면 양상이 좀 다르다. 高麗의 農民運動은 土地制度와 支配秩序의 문란으로 社會經濟의 混亂이 가중되고 身分制度의 붕괴로 인한 社會民衆意識이 싹트면서, 지배계급의 收奪에 참고 견디어 오는 동안 内在된 응집력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自然環境要因도 작용하였겠지만 平等의 身分意識 성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人爲的 환경의 어려움을 社會改革을 통한 環境改善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李朝 農民運動 또한 社會的, 經濟的 압박과 지배질서의 문란, 지배계급의 收奪 등으로 農村分解가 촉진되면서 성장한 社會的 民衆意識이 폭발하여 農民運動으로 번지게 된다. 自然의 요인은 단지 農村分解를 촉진시킨 요인에 불과하였다. 農村經濟, 나아가 국가 사회 파탄의 근본 요인의 인식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農民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막는 저해요인에 대한 社會意識이 民衆意識으로 성장하면서, 누적되어 온 農民層의 構造的 컴플렉스를 자각하게 된다. 단지 오랫동안 内在되어 왔지만 宿命의으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民衆意識이 싹틈으로써 현실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解決樣式이 전통적 사회체제와 부딪치면서 하나의 투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轉換期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自覺하고 치유하려는 意識的 問題提起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農民運動을 政治史觀에서

反封建 反體制에 대한 抵抗運動으로 보아 왔지만, 高麗의 農民運動은 支配階級에 대한 저항에 그치지 않고 社會制度의 개선과 나아가 身分解放運動으로 발전하는, 뿐리 깊은 古代性을 극복하기 위한 社會運動이었다. 그리고 李朝의 農民運動은 階級意識을 초월한 倫理의 封建性내지 전통적 폐쇄성을 파기하기 위한 社會改革運動으로 外勢에 항거하는 民族意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 民族이 經濟社會的으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根本問題는 바로 農民問題였고 이것은 政治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農民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農民運動은 바로 농민의 社會的・經濟的 問題를 해결하려는 社會大衆運動이었다. 農民은 被支配階級으로 수탈과 핍박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왔을 뿐이다. 그러나 民衆意識의 集團의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는 被支配階級으로서 굴하지 않고 과감한 社會改革運動으로 전개하는 공통된 힘을 보여 주었다. 結論의으로 우리 나라 農民은 轉換期의 상황에서 無意識의으로 内在된 캠플렉스를 자각하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 現實問題로 받아들인 다음 農民 스스로 해결하려는 正體法確認 作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간 우리 農村도 轉換期의 상황에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다. 農村經濟의 상대적 低落, 家父長의 支配秩序의 붕괴, 農民의 社會的 地位下落 등 構造的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農村의 일각에서 根本問題에 대한 自覺과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어느 때보다 農民의 意識水準도 향상되었고 自主的 활동도 보장되는 편이다. 단지 農民의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歷史的 사실에서 보아 왔던 것처럼 農民 스스로 일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일지, 또 어떤 方

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農民과 農民을 둘러싸고 있는 人爲的인 環境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註 및 參考文獻

- 1) 朴賢洙 譯(1978), 「農民」, 에릭 R. 울프 著, 青年社, pp. 16-19
- 2) 姜晉哲, 「高麗土地制度研究史」貢賦의 収取構造, 高大出版社, 1980, 참조.
- 3) 陸軍本部,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pp. 35-36.
- 4) 太宗實錄 卷4 太宗 2年 8月 王子條.
- 5) 上揭書, 「韓國軍制史」, p. 244
- 6) 深谷敏鐵, 「朝鮮의 土地實行一並作半收試論」, 「社會經濟史學」, 11(9), 1941 참조.
- 7) 李佑成, 「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 「震擅學報」, 第29-30 合併號, 1966.
- 8) 高麗史 卷78 食貨志 1, 趙浚第2上疏文 참조.
- 9) 太宗家錄 卷29, 太宗15年 6月 庚寅條
- 10) 奕宗實錄 卷6, 奕宗元年 6月 甲子 傳旨戶曹……
- 11) 世宗實錄 卷124 世宗 31年 4月 癸丑條.
- 12) 世祖實錄 卷43 世祖 13年 8月 乙巳條, 李施愛의 亂 참조.
- 中宗實錄 卷21 中宗 10年 4月 丁未條 “臺諫啓前前事….”
- 13) 成宗實錄 卷40成宗 5年 3月 癸卯條.
- 14) 仁祖實錄 卷28 仁祖 11年 2月 丙寅條.
- 15)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田制考」, p. 309
- 16) 碩溪隨錄 卷2 田制下.
- 17) 西厓集 軍門謄錄 丙申 正月 初 3日條
- 18) 金潤坤, 「壬辰亂 勃發直前의 地方郡縣實態」, 「柳洪烈博士 華甲記念論叢」, 1971, p. 235.
- 19) 成宗實錄 卷7 成宗 元年 9月 己卯條.
- 20) 金玉根, 「朝鮮後期經濟史研究」, 瑞文堂, 1977, pp. 9-10.
- 21) 鄭徹 松江集別卷1 雜著 論邑宰文 參조.
- 22) 黃夏鉉, 「壬辰亂 이후의 大同 및 均役의 財政의 研究」, 金玉根(1977)에서 再引用
- 23) 震擅學會, 「韓國史」, 第3卷,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p. 55.
- 24) 柳世熙, 「韓國農民運動史」, 韓國現代文化社 大系IV, 高代民族文化研究所, 1971, p. 273.
- 25) 高大民族文化研究所篇, 「韓國文化史大系」, 第2篇, 1965, pp. 1334-1335.
- 26) 자세한 것은 震擅學會, 前揭書, pp. 52-78.
- 27) 柳世熙, 前揭書, p. 274.
- 28) 没落兩班의 農業從事에 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1970, pp. 216-224 參조.
- 29) 李暉光 茲峯類說 卷4 官職部 官制條.
- 30) 李重煥 指里志, 八道總篇, 京畿條.
- 31) 上揭書, 卜居總論, 人心條.
- 32)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觀察 京城帝大法學會編」, 「朝鮮經濟の研究」, 1938, p. 387.
- 高承濟, 前揭書 p. 269에서 再引用.
- 33) 高其陽, 「李朝後期의 政治支配關係」, 「歷史學研究」, 歷史學會編, 正音社, 1949, p. 58.
- 34) 純祖實錄, 卷15 純祖 12年 2月 丁未條, 副護軍吳淵常疏.
- 35) 丁若鏞 詩文集 書(1集19卷) 與金公厚.
- 36) 純祖實錄 卷14 純祖 10年 12月 庚戌條.

- 37) 朴廣成, “晋州民亂의 研究,” 「仁川教大論文集」, 第 3  
輯, 1968. 12 p. 92.
- 38) 柳世熙, 前揭書, pp. 282-285.
- 39)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3月 戊寅條.
- 40) 高承濟, 前揭書, p. 304.
- 41) 增補文獻備考 書校 哲宗 10年 書堂
- 42) 安秉烈, 「朝鮮解放史」, 3. 1運動과 農民, 朝鮮科學者同  
盟編, 文友印書館, 1946, pp. 60-61.
- 李炫熙, 「韓國史大系」, 8, 三珍社, 1973, pp. 87-88. o]  
서 再引用。
- 43) 金仲植 編, 「孟子註解」, 韓國印刷株式會社, 1956, p.  
78.
- 44) 金容燮, “李朝後期의 農業問題,” 「韓國史研究」, 第 2號  
1968, pp. 66-67.
- 45) 李廣遠, “高麗時代 農民運動의 性格과 農民意識 變化,”  
「農村經濟」, 第 4 卷 第 3 號 1981, pp. 134-147.